제321회국회
(임시회)

#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2월26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
   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과
   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과 및 향후 대책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 ····· 1
   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과
   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과 및 향후 대책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재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현안보고**

**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과**

**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과 및 향후 대책**

**○위원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항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과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과 및 향후 대책에 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5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바와 같이 개별 국제경기에 대하여 그 성과나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8일간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역대 최대의 규모로 대회를 치른 바 있습니다.

표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우에는 10월에 2013년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개최하였지만 2014년 대회가 무산되면서 2015년 이후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조직위원회로부터 이와 관련된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및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각 조직위원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조직위원장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설문식 경제부지사께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이개호 사무총장께서 각각 대리 출석하여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박위진 체육국장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특위가 열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 우리 국제경기대회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각종 국제경기대회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또 국민의 혈세를 쓰는 데 비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도 특

위가 좀 앞장서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대회를 마무리한 세계조정선수권대회하고 그리고 표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해서도 과연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설문식 부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설문식입니다.

조직위원장이신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보고를 드려야 하겠으나 충북의 주요 현안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개막식과 대회기간 중에 충북 충주의 경기장을 방문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위원장님과 이에리사·윤관석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 미리부터 장애인 관련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신 최동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원 덕분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성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충주 탄금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82개국에서 196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고 약 16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대회 개최에 따른 주요 성과입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22만 명의 중소도시에서 개최된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보고드립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국제조정경기대회를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통 인프라의 확충으로 지역 발전도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양대학교의 분석에 의하면 대회 개최 결과 1159억 원의 생산유발과 356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페이지,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30억 원입니다. 이 중에 964억 원이 집행되었고 66억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기장 건설과 진입로 등 경기장시설비로 638억 원을 충주시에서 집행하여 집행잔액 34억 원은 이미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운영비는 12월 20일 현재 326억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이 모두 종료되면 잔액을 예산 조성 비율에 따라 국가·도·시로 각각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정 관계자들의 대회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있어서 선수단과 관중 규모에서 역대 그 어느 선수권대회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나아가 조정 종목에 대한 관심이 큰 유럽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아에서 처음 열렸던 2005년 일본 기후현대회에는 53개국이 참여했었고 가장 많이 참석했던 대회로는 2011년 68개국이 참가했던 유럽의 슬로베니아대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관중은 2010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열린 경기에서 6만 명의 관중이 최대였습니다.

데니스 오스왈드 국제조정연맹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충주대회의 성과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충주에서 다시 한 번 국제조정대회를 개최하였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대한조정협회와 장애인조정연맹에서 주관한 경기 운영도 오심 없는 완벽함을 보여 주었고 역대 조정선수권대회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제조정대회를 통해 해당 종목의 경기력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또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목적 중 하나일 것입니다.

본 대회를 통해 국내 조정스포츠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것 또한 큰 소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향후 경기장 활용 계획입니다.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은 언제라도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정 종목은 이미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어 있으며,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회장국인 아시아조정연맹에서 2016년 브라질올림픽 아시아 예선대회를 충주 탄금호에서 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조정연맹이 주관하는 메이저급 대회를 추가로 유치하는 방안도 충주시와 협의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대회로는 매년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가 열리게 되며, 2017년에는 전국체육대회가 충주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배와 K-water배 등 전국 대회도 추가로 유치하여 경기장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대표와 충주시청, K-water팀이 상주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국내외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체험학교의 이용 인원은 연간 1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정경기의 특성상 협동정신이 없으면 경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학교 등의 팀정신 강화 훈련에 아주 유용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크게 부각되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지은 경기장이 국제경기장에 걸맞도록 아이템을 발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충주시 모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2013년 12월 31일 자로 모든 업무를 마치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또 2014년 말까지는 청산법인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의 이개호 사무총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F1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개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이 박준영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도내 22개 시·군 시장 군수들과 오늘 공교롭게 똑같은 시간에 도·시군 정책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미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적한 국정 현안 처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F1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F1대회 개최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그동안 F1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네 번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대회는 대회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개최권료 협상과 개최시기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년을 쉬는 것으로 본 기구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1년을 쉬면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에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F1대회 현안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2본부 5부 11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현원이 42명으로 6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준영 도지사와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경제계 등 모두 115명의 조직위원들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경주장 시설은 지난 2007년 7월에 착공해서 2011년 9월에 완공했습니다. 65만 평, 187만 3000

㎡의 부지 위에 서킷과 여러 관련 빌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킷 길이는 5.6㎞로 국내 최대가 되겠습니다. 경주장 시설과 관련한 사업비는 4425억입니다.

두 번째, 금년도 F1대회 개최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회는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 동안 KIC에서, 영암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모두 11개 팀이 참가했고, 관람객은 연 15만 8000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해외 관광객은 1만 4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성과는 대한민국과 전남의 위상 제고는 물론 국내 대중 스포츠로서 정착의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대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개최권료 인하를 통해서 대회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 지속적인 대회 개최 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축적된 대회 개최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완벽한 대회를 개최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F1 지원법이 개정돼서 내국인 대회운영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대회 기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모터스포츠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네 번 연속 F1대회 성공 개최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회 그리고 함께하는 F1대회 원년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미 보고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도 대회는 대회 주최 측과 합의하에 대회기간 이견 등으로 인해서 1년 쉬고 2015년 재개키로 이미 합의를 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항 첫 번째로 2015년 F1대회 개최 현황과 관련한 협상 문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최권료와 관련해서 적정 수준의 개최권료 협상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의 개최권료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안 두 번째는 상용차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회가 현재 쉬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국제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2014년 각종 국제대회 캘린더를 고려해서 국제적 인지도가 높으면서도 개최효과가 큰 대회를 한두 개 정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개최 계획은 CTCC대회가 먼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는 중국에서 연간 8라운드가 개최되는 최상위급 국제대회입니다마는, 특히 국내의 기아, 현대차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형식으로 개최키로 이미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회로는 FIA GT series가 되겠습니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깊은 대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최 측과 현재 개최방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경주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각종 모터스포츠대회를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국내 프로대회 34전 중에서 21전을 저희 영암 서킷에서 개최키로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F1대회 개최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 R&D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현재 유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 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내년에 자동차 튜닝 산업 핵심기반 구축사업이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장 사용 임대 마케팅 활동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네 번째로 2015년 대회 개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스폰서 그리고 트랙사이드 광고 등 후원기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FOM 및 F1대회 개최 국가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장 시설 개·보수와 대회 관련 장비의 국산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대회가 쉬게 됨을 계기로 해서 조직위원회는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1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지원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린 대로 F1대회는 국가브랜드

를 걸고 치르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전라남도가 개최 비용 대부분을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2016년까지 대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매년 일정한 정부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그리고 대안 등에 대해서는 향후 대회 운영과 개최에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권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충주조정경기대회조직위원장님이 이시종 위원장님이신데요, 오늘 다른 일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정리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위원장님이 불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더욱이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의 위원장님도 불참을 하셨습니다. 지금 포뮬러원은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겠지만 4년간 누적 적자가 2000억이나 되고, 2014년에는 대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위중한데 위원장님이 도·시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다고 안 나오신 것은 위원장님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이 위원회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권은희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F1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고 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오늘 평가를 하는 자리입니다, 대회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마땅히 조직위원장들이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고 그리고 또 국제경기대회가 국민의 혈세로 개최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리에 치러져야 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전에 양해 전화가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허락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윤** 예, 안민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지금 문체부 관계자 나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예.

**○안민석 위원** 며칠 전의 어느 신문기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국제경기대회 승인 전에 요청한 국비하고 승인 이후에 증액된 국비하고 그게 두 배, 세 배 그렇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료를 2000년 이후로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월드컵도 포함될 거예요. 2002년 월드컵도 포함이 되고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 그리고 오늘 F1대회하고 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해 가지고 하면 거의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2000년부터 평창올림픽까지 각 승인 전에 신청한 국비하고 승인 후에 증액된 것하고 그것을 자료를 좀 만들어서, 아마 금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것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국제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결국에는 대부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민체육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체육 인프라를 위해서 체육관 짓고 동네 수영장 짓고 테니스코트 짓기 위해서 기금을 써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메가이벤트를 치르는 데 돈이 대폭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가이벤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국민들의 체육인프라를 위한 예산들은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만큼 고갈됐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가령 지금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제가 듣기로 한해에 거의 1000억에서 1500 정도가, 동네체육관·수영장 지어야 될 돈들이 평창올림픽으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예상됐던 게 아니라 유치하고 난 다음에 더 증액된 돈들이 두 배, 세 배는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해마다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것까지, 똑똑하신 우리 문체부 직원들이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이것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처음입니까? 저는 준비가 지금 덜 됐는데요.

**○위원장 김재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분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저도 준비가 사실 안 돼 있는데……

**○위원장 김재윤** 그래요?

그러면 최동익 위원님, 먼저 질의 괜찮으시겠습니까?

**○최동익 위원** 예.

**○안민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원래대로 할게요.

**○위원장 김재윤** 최동익 위원님 하시고……

**○안민석 위원** 아, 하시겠어요?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김재윤** 다음은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위원** 충주대회 말이에요, 내년부터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를 얼마로 잡고 계세요?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시설운영비, 유지비를……

**○최동익 위원** 예, 유지비요.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연 6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연 6억요?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예.

**○최동익 위원** 그러면 그게 각종 대회 수익금으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충주시 예산으로 처리됩니까?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충주시 예산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전혀 국고나 이런 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지요?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예, 맞습니다.

**○최동익 위원** 6억이면 충분하단 얘기지요?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예.

**○최동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뮬러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적자가 얼마쯤 돼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까지 네 번 대회를 치렀습니다만 1802억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적자가 얼마나 나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금년에는 180억 적자가 났습니다.

**○최동익 위원** 180억요? 내년에는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회 자체가 휴회를 하기 때문에……

**○최동익 위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적자를 얼마로 예측하세요? 거기에 지금 시설 운영하고 각종 대회를 또 몇 개 유치하신다면서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시설 운영은 적자는 아니고요, 다른 일반 국내대회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경기장 운영은 계속 흑자를 내고 있고, 다만 대회를 했을 경우에 F1대회처럼 큰 대회는 적자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기타 국내 프로대회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는 F1대회를 유치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는 예상되지 않는단 말씀이세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결론은 F1대회를 해서 발생하는 적자는 어디서 메워 나가고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 180억을?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당연히 도비 지원을 통해서……

**○최동익 위원** 100% 도비 지원입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

**장 이개호** 일부 국비도 지원이 되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적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도비로 그것을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는 적자는 없다는 얘기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최동익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자 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뭐예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를 하려면 대회를 유치한 기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유치가 국내에서 모터스포츠를 즐기고 또 그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대회 유치를 통해 가지고 F1경기장 주변지역에 대한 자동차부품산업기지로서의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 또 그 주변지역이 광대한 산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 부지로 되어 있는데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선도핵심사업으로 당초 F1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과 관련해서 보면 일정한 정도의 성과도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익 위원** 그 성과평가를 하셨어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성과평가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최동익 위원** 보고서 같은 것 있으세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아까 제가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동익 위원** 보고서 있으시냐고요. 성과평가한 보고서 있으세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제출한 적 있으신가요, 저희 쪽으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국회 제출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런 목적으로 유치를 해서 진행을 했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180억이라는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 비록 그 경기 운영 자체는 180억 적자지만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아웃풋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 와서는 적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지, 여태까지 제가 작년부터 특위를 하면서 늘 느꼈던 것은 거기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났던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적자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만을 요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 설득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흑자가 났다고 생각하세요, 성과적인 면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세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우선 자동차부품산업 관련된……

**○최동익 위원**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해 주세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시된 이후에 기간이 상당히 경과했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최동익 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2010년부터 작년까지 해 왔던 결과인데 역내의 직접적인 소비 지출이 연간 한 400억 내외 정도 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유발이 연간 한 4500억 내외로 지금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4500억, 400억이면 4900억이라는 아웃풋이 있었다고 보면 도비 증가가, 그 대회를 치름으로써 세수가 얼마나 늘었어요? 유발효과가 4900억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세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세수증가분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얼마로 입증이 됐냐고요. 유발 기대효과를 4900억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를 통해 가지고 4900억이라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세수라든가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된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도비가 얼마나 증대됐는지에 대해서는 도비 수익을 구체적으로 집계한 바가 없습니

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연구보고서를 했다는 게 사실상 좀 약하잖아요.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납득을 시켜 줘야지, 가뜩이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그런 것에 대한 서포트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宰榮 委員** 제가 해도 될까요? 두 위원님들…… 제가 먼저 할까요?

**○염동열 위원** 예, 그다음에 할게요.

**○李宰榮 委員** 아까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적자 폭이 큰 양 대회의 위원장님 두 분께서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사후조치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F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2000억 원 정도 적자 폭이 난 거지요, 지난 4년간? 그렇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802억……

**○李宰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반올림해서 2000억 원, 하지만 1800억 원 정도.

거기 들어간 시설비가 얼마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440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李宰榮 委員**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내년에는 대회가 없으니까 적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것은 F1대회와 관련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李宰榮 委員** 그런데 F1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잖아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F1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李宰榮 委員** 경기장은 F1을 위해서 만든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지요. 주목적인데……

**○李宰榮 委員** 다른 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게 아니고 F1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 나머지 얘기하셨던 추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다른 대회도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李宰榮 委員**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무총장님.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아니요……

**○李宰榮 委員**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물어보세요. 누가 그 경기장을 F1이 아니고 다른 경기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F1이 주이고 나머지는 F1이 성공적으로 유치되는 상황에서 비는 공간 동안, 쓰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대회를 유치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지요. 그러니까 함께 한 거지요.

**○李宰榮 委員** 그러니까 F1이 주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습니다.

**○李宰榮 委員** 그렇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李宰榮 委員** 그러면 사천몇백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지금 유치하지 못하는데, 주목적인 F1을 유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없으니까 적자 폭이 없다, 적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제가 드렸던 말씀은 F1대회와 관련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李宰榮 委員** 그리고 사무총장님, 죄송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 물론 이 보고서를 직접 만드시지는 않았겠지만 누가 봐도 F1은 지금 실패행정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소위 말하는 반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국제대회 현황, 향후 대책에 보면 죽 나열해 놨어요. 범세계권 5개, 유럽권 2개, 미주권 2개, 아시아권 7개

해 가지고 페이지 5번에 이런 것들을 다 유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써 놓으셨는데 이것은 면피하시기 위해서 그냥 인터넷에서 모든 자동차경주대회 다 적어 놓은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몇 개나 협상되고 있으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될…… 몇 % 될 것 같아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기장 운영과 관련해서 비는 기간, 블랭크가 되고 있는 기간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대회를 유치할 수는 없고요.

**○李宰榮 委員** 내년에는 어차피 다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지 않습니다.

**○李宰榮 委員** 아니, F1이 없으면 다 비잖아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지 않다니까요.

**○李宰榮 委員** F1 기간만큼 비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F1 기간만 비지요.

**○李宰榮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준비하고 어쩌고저쩌고 앞뒤로 하면, 예를 들어서 많이 양보해서 한 5개월 걸린다 치더라도……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게 걸리지는 않고요.

**○李宰榮 委員** 한 2개월 걸립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한 달 정도……

**○李宰榮 委員** 한 달 정도, 홍보는 예전부터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11개월 동안 유치한 게 한 건이라도 있으세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여기 보시면요, 상용차 국제대회가 그렇고요.

**○李宰榮 委員** 몇 페이지를 볼까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6페이지 보시면……

**○李宰榮 委員** 아니 사무총장님, 사천몇백억이라는 돈이 들었잖아요. 사천몇백억이 들었으면 동네 경주 하려고 지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동네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 프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李宰榮 委員** 그러면 국내 프로대회를 해서 사천몇백억 원짜리 투자가 이유가 돼요? 국내에 그 정도로 큰 프로대회가 있습니까, 몇천억짜리를 할 수 있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것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경기장을 지어서 1년 쓰는 게 아니고 매년……

**○李宰榮 委員** 그러니까 그걸 매년 하면, 국내 프로대회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저희는 경기장 수익을……

**○李宰榮 委員** 아니, 국내 프로대회를 유치하면 그 대회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떻게 돼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보통 1억~2억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李宰榮 委員** 1억~2억, 그걸 매년 유치하니까 1억~2억짜리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1억~2억이고요. 1년에 지금……

**○李宰榮 委員** 사무총장님, 말씀 잠깐만요.

1억~2억짜리 프로대회를 위해서 지금 사천몇백억짜리 대회장을 만들었다고는 말 못 하실 것 같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죄송합니다.

**○李宰榮 委員** 사무총장님, 죄송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참 구차하게 들려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지 않습니다.

**○李宰榮 委員** 아니지요. 1억~2억짜리 대회를 위해서 지금 4700억짜리를 우리가 쓰고 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1억~2억짜리 대회를 1년에 하나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李宰榮 委員** 가장 중요한 건 F1을 유치 못 한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사무총장님, F1을 유치 못 한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지어진 대회장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대회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

제적인 부가수익 내지는 효과 이런 것도 다 F1이 유치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이 나올 거고 경영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 행정관료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말씀을 하실 거고. 이 혈세를 낸 모든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요, F1대회가 유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그것 못 했으니 다른 걸로 메우면 된다. 1억~2억짜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5000억 썼으니 잘 썼다'라고 말씀하실 분 아무도 없다고요. 이 보고서에 그것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거기 앉으셔 가지고 변명을 하셔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15년에 유치를 하든지……', 들어 보면 15년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오히려 가면 갈수록 낮아진다고 언론에서는 계속 그러지요. 그런데 누가 지금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이거는 반성의 그거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적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F1대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경청하셔 가지고 이후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리고 성과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F1하고 조정 관련 위원장님 두 분이 지금 안 나오셨다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사안들인 만큼 깊이 반성하시고 다음에는 꼭 반드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F1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2008년도에 유치를 했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유치는 2006년도에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 박준영 도지사님 계실 때 한 것 맞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현영희 위원** 그러면 책임을, 마무리 잘 지으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도 언론의 이야기를 좀 했지마는 F1 같은 경우 유치를 처음 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총 예상금액이?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어떤 분야…… 개최권료 말씀이신가요?

**○현영희 위원** 아니, F1에 대해서 총 예상금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원했을 때, 유치를 할 당시에……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흑·적자 대회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영희 위원** 아니요, 총 금액. 대회를 유치하려면 그 예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얼마나 했느냐고요. 기억이 안 납니까? 총장님이 그걸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제가 위원님 질문 주신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아니,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처음의 그 예상금액이 총……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러니까 전남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영희 위원** 아니, 총 금액. 국비든 민자든 도비든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얼마를……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지금 그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들어간 경비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시설비가 있는데……

**○현영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운영비, 시설비를 다 합쳐서요?

**○현영희 위원** 모든 걸 다 합쳐서 얼마를 했느냐고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처음에 약 6000억 정도 예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 6000억 예산을, 계획을 세웠으면 그 6000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건 다년간,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운영비와 시설비입니다.

**○현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잘 계획했으면 그 예상금액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계속계속 늘어났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F1에 지불하는 개최권료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였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우선 국비와 관련해서는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매년 50억씩 정액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고요.

개최권료는 당초에는 연간 약 430억 정도 내외가 됐었는데 많이 감소했습니다.

**○현영희 위원** 아니, F1에 지불하는 개최권료가 10년도에는 381억 원이고, 11년도에는 484억 원이고요. 우리가 계속 개최권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는 우리가 F1대회를 못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못 하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면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방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개최 시기에 대한 이견 또……

**○현영희 위원** 개최권료 협상 결렬에 따라서 내년도에 개최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개최권료 협상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함께 맞물려서……

**○현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느냐고 이유를 묻잖아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최 시기와 개최권료 이런 것들이, 제반사항들이 함께 맞물려……

**○현영희 위원** 그러니까 개최권료 협상 때문에……

이 대회를 내년도에 어디에서 하기로 됐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우리가 안 하면 어디에서 대신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현영희 위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내년도에 개최를 못 하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시기라든지, 시기는 10월 달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최권료 협상이 결렬돼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현영희 위원** 그러면 왜 그 협상이 결렬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서로 뜻이 안 맞기 때문에,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영희 위원** 개최권료 협상이 결렬된 건데 우리가 얼마를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 얼마나, 그리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개최권료가 우선 달러 베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매년 4300만 불 정도를 지급해 왔는데 금년도 대회와 관련해서 협상을 해서 2700만 불로 깎았습니다.

**○현영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반액으로 깎았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내년도에 더 깎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지요.

**○현영희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거를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계속 누적적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쉬고 그다음에 꼭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협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현영희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앞으로 2016년까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약 2867억 원의 누적적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대회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소가 개최권료이기 때문에 개최권료 협상을 잘 하도록……

**○현영희 위원** 감당하지 못할 걸 지자체에서 그렇게 유치해 놓고 정부에 자꾸 또 지원을 해 달라……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 정부지원을 받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원합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내년도에는 대회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속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귀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감사합니다.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권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지금 F1 사무총장님이 대답하는 게 너무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위원의 질문에 집중을 하시고 성의 있게 답변하기를 위원장님이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윤** 우리 총장님하고 부지사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문체부에서 체육국장 나오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 이정우** 나오셨는데 잠깐 이석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니, 나오셨는데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는 건 또 뭐랍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 이정우** 안민석 위원님이 부르셔 가지고 잠깐 나가셨습니다.

**○박혜자 위원** 얘기가 안 되네. 저는 지금 체육국장한테 질의를 던질 게 있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체육국장 오기 전까지 제가 사무총장님께 F1에 대해 묻지요.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닛산이라든가 혼다 같은 경우에 F1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대회 스폰서로 작년까지는 혼다가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참여기업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

**○박혜자 위원** 아니, 스폰서가 아니라, F1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자동차기술 경연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일본의 닛산 같은 경우에 인피니티에 F1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또 혼다의 경우에도 F1에 2008년도에 잠깐 떠났지만 2015년부터 다시 진출해서 경기차에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립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황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자동차경주입니까, 아니면 자동차기술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경연장입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자동차와 관련된 전체적인 기술력의 총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묻지요.

사무총장, 아까 여러 가지 흑자·적자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영암 대불산단 내의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내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어떤 변화가 있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F1대회 치르면서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역에서부터 증폭이 돼 왔고요, 금년도에 자동차부품산업연구원—국립이 되겠습니다마는—분원이 F1 경기장 주변에 유치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 유치가 되면 언제까지 어떤 규모의 부품센터가 들어섭니까? 부품업체들이 집적이 됩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우선 금년도에만 사업과 관련해서 전부 783억 정도의 정부지원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조시설 또 관련된 산업이 함께 유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F1 있기 전에 영암에 어떤 구체적인, 영암이나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산업이 있었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특별한 산업이 없는 농업만 하는 지역이었고요. 그 지역에 정말 어렵게 어렵게 F1을 유치해서 F1이 진행되면서, 네 번째 대회를 금년에 치렀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모터스포츠와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고 그러한 결실이 서서히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난 10월에 국토교통부가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설립을 인가했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자동차튜닝협회가 앞으로 설립이 되게 되면 영암의 자동차부품산업단지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자동차튜닝산업이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양성화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시장규모는 굉장히 큰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부터 법적으로 그 산업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후보지로 여러 군데가 함께 검토됐었는데 다행히 저희 F1 부지 주변지역이 자동차 튜닝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모터스포츠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가 아주 높게 획정이 돼서 내년부터 직접적인 정부지원에 의한 사업이, 또 정부지원에는 연구와 산업기반이 그 주변지역에 유치가 되도록 확정이 돼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확정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튜닝시장이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한 4조 원 규모의 대단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산업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전남에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설명 중에 올해 180억 원 정도의 적자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의 적자규모는 얼마였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다행스럽게 적자규모가 계속 줄었습니다. 처음에 1회 대회 때 한 700억 정도 적자가 발생했고요, 2회 대회 때 600억 정도, 그리고 작년 3회 대회 때는 약 380억이 발생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적자가 계속 50% 이상씩 줄어왔네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금년에는 50% 이상 줄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F1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5년은 어떻습니까? 원래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기에는 10월과 4월설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F1 포뮬러 본부에서 사실은 4월 개최를 요구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F1이 여러 국가에서 대회 유치를 신청하니까 캘린더상의 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4월 정도로 당겨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4월에 개최하기에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10월 개최로 해 주도록 요구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요구를 하면서 함께, 아까 개최권료가 적자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최권료를 더욱더 인하를 해 주도록, 금년에도 많이 인하를 했는데, 한 40%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더 인하를 해 주도록 요구를 추가로 한 겁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쉬고 2015년도에 4월 개최로 옮겨 갈 예정입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FOM, 그러니까 F1 본부에서는 2015년 4월에 개최를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10월 개최를 당겨서 내년에 바로 4월 개최하기보다는 차라리 1년을 쉬고 내내년 4월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한 거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2015년 4월에 해 달라,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국장 오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예.

**○박혜자 위원** 체육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몇 번째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동차 강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산규모로 봐서 세계 몇 위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제가 확인된 정보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제가 듣기로는 한 6위권 정도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제가 아는 자료로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돼 있어요. 인정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예, 5~6위권에 들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5위권의 자동차 생산국인데요. 일본의 경우 앞으로 우리가 더 따라가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닛산이라든가 혼다 같은 경우에 F1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또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상호 호환적으로 가져오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도 자동차 생산 강국으로서 도약을 하자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 발전에 같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윤** 박혜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마무리 30초 내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예.

**○박혜자 위원** 자동차산업,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중요 산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올해 국내에서 개최된 자동차경주대회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변변한 대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변변한 대회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그냥 정부지원 없이 F1대회 무산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위원장 김재윤** 박혜자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특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특위 활동이 저는 너무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사실 오늘 조직위원장님도 안 오시고 총장님이 대신 오셨고, 또 여러 번 회의를 해도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특위 활동이 보다 강력한 주문이 되거나 지적이 되거나 또 거기에 따른 효율성이 극대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로 특위가 끝나고 내년에 다시 연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각 조직이나 지자체가 보다 강력하게 특위 활동에 의한 주문·지적에 합당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충주, 이게 다 끝났지요?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예, 끝났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게 마지막 성과보고입니까?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또 보고 없습니까?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없습니다.

**○염동열 위원** 지사님께서 안 오신 게 좀……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염동열 위원** 안타깝고요.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에 있는 대로 우리 국내 22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치른 뛰어난 국제대회였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염동열 위원** 사실 저도 문광위에 있고 또 특위 활동을 합니다마는 이 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해 제가 노력하지 않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홍보는 사실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유료관광객이 6만 정도밖에 안 되고 무료관광객이 10만 명이나 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도 좀 과다하게 들어간 것도 있지 않나…… 제가 보니까 거기 중계도로 하려고 만든 도로가 있지요?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예,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게 93억이 들었는데……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90억 원……

**○염동열 위원** 예, 90억 원 들었는데 시간적으로 보니까 3시간 한 반 정도 쓴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물론 작은 겁니다마는 효율적으로 대회를 치르는 데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시장님하고, 시장님께서 집행위원장이지요?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예.

**○염동열 위원** 그리고 도지사께서 조직위원장이시고, 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까? 초청장 사건은 또 뭐지요?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아니,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실무진의 착오에 의해서 생긴 단순 사건입니다.

**○염동열 위원** VIP실 들어가는데 집행위원장이 제지당했다는 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그것도 언론보도하고 달리 그야말로 실무진이 경황이 없어서 일하는 와중에 생긴 사소한 건으로 생각합니다.

**○염동열 위원** 저는 이 면에서 사소한 겁니다마는,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바로 충주조정대회가 막대한 국비 또 지방비 또 여러 자원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과적이지 못했다,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뭔가 조직위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다 끝났습니다마는…… 그리고 충주 관광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사실 실패한 것 같고요. 다만 대회가 끝나고 나서 충주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여기 다른 조직위 관계된 분도 계십니다마는 항상 국제대회는 우리나라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고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신뢰도를 높여 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개최 도시도 세계 속에 알리는 역할도 해 줘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대회뿐만 아니라 대회 주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은 눈에 띄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비록 끝났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충주가 좀 알려졌다고 한다면 각 지역의 향토적 가치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문화를 잘 개발해서 좀 지났습니다마는, 물론 사후약방문입니다마는 엮어서 충주가 보다 알려질 수 있는 관광도시로…… 굉장히 자원이 좋더라고요, 저도 가 보니까. 관광 인프라를 지금이라도 보다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유념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염동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 대회를 치른 목적이 대회만 치를 목적이 아니라 그 대회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 가치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대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통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에펠탑이라든가 런던아이라든가 다 조상들이 만들어 놓고 후예들이 다 먹고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비록 작은 대회입니다마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얻어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충주시는 물론 저희 충북도 또 주무부처 모두 합심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F1 협상이 결렬됐는데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74억 정도 더 감액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말을 안 들었구먼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보다 더 많이 제시하는 국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됐습니다마는 F1 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내용이 대회를 2015년 4월에 하라는 것과 함께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회는 드롭이 됐습

니다마는 추후에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성의를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물론 국내외의 프로대회도 있고 크고 작은 대회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 경기장은 F1 때문에 사실은 건설한 것 아니겠어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맞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F1이 유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그 74억을 감액하는 차이의 손해와 더 주고라도 대회를 유치하는 것의 플러스 요인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낫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다소 적자를 보더라도 대회장 운영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개최를 하는 게 온당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좋습니다.

총장님,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전라남도가 자립도가 사실은 하위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강원도기 때문에 그런 취약하고 뭔가 사각지대처럼 느껴지는 도 세에 있어서 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6000억 정도의 자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잘 키우게 된다고 한다면 박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얻어 내는 중요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저도 알펜시아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F1 문제 다시 한 번 시도해 보시고 또 그 외에 이 경기장을,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총동원해서 지혜를 짜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고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회의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는 이런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조정경기 여기 보고서를 보면 예산 집행 내역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잘 됐고요. 지금 또 한 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대회를 해서 실제로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벌었는가, 수지타산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적자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초반에는 인프라 비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적자지만 일차적으로 현재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대회에 들어간 돈과 대회에서 번 돈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가치 이것을 또 예측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국민 혈세가 낭비됩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시는 그 자료는 반드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대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예, 알겠습니다.

최종적인 결산은 내년 3월에 모든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게 마무리되고 대차대조표나 장부가 마감됩니다. 그때 보고드릴 수 있을 겁니다.

**○권은희 위원** 예, 그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성과보고를 하는 것은 '나 이렇게 잘했다. 알아 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점은 잘했고 이런 점은 잘못됐더라.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대회를 하는 사람은 참고해라' 이런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부 다 '대회 잘했다'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잘못 생각해서 잘못됐던 것, 부족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성과보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1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F1 질문에 앞서서 문체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2006년에 FOM과 이 대회를 결정할 때 문체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데 그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06년에는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권은희 위원** FOM과 계약 체결하기 전에 문체부와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안 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면 문체부는 문체부와 협의하지도 않은 이런 대회를, 이런 선례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거나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그 이후에 F1대회 관련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지원을 하게……

**○권은희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문체부는 아까 안민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에 이런 대회, 문체부와 협의하지 않고 대회를 추진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예.

**○권은희 위원** F1대회를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저게 병의 원인인지 아닌지가 매우 헷갈립니다.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 예산 할 때 TV 중계료 건도 누락하고 운영비 지나치게 적게 산정하고, 여러 가지 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자체로서 그 지역만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지나치게 또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지나치게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F1은 어렵게 유치한 거고 이렇게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잘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먼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하고 영암 F1대회 올해 치르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각종 국제경기대회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들이 단일성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개최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소중한 경험과 자산으로 활용돼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여기 대충 국회 보고용으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대회 평가의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의 전 과정에 어떤 비효율이나 또 잘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 운영상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또 어떤 대회를 개최하는 곳에도 이러한 부분은 보니까 아주 우리가 권하고 싶다, 바람직한 부분이다 또는 사후 시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것이 일종의 백서 형태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경제 파급효과 분석이나 이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김기선 위원**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 그런 것 말고 세세하게 운영상에서는, 아까 우리 염동열 위원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집행위원장이 들어가는데 세세하게 운영상의 이러한 문제도 있었다, 이것은 향후 이런 대회를 치르는 데 경험으로 이렇게 알려 줄 사항은 봐 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내년 3월에 결산을 하면서 그 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그때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보완해서……

**○김기선 위원** 그거 꼭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충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소중한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국제경기대회인데 그거 단일성으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어디서 해야 되느

냐? 바로 문체부가 해야 돼요.

우리 체육국장께서 국제경기대회가 이루어졌던 지난 모든 대회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문체부 관점에서 이걸 정리하고 소중한 자산으로…… 앞으로 국제경기를 치를 때 권장할 사항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각 분야별로 이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그런 말씀 때문에 저희가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개정해서 국무회의 통과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할 거고요. 국제대회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기선 위원** 제가 좀 답답합니다,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체부 체육국장이 당연히 할 책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예, 그렇게……

**○김기선 위원** 지금 보니까 엄청난 국가 예산 투입하는데 그걸 소중한 자산으로, 경험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네. 그거 여지껏 국제경기대회 한 것 전부 다 각 분야별로 앞으로 권장사항 '이런 것들은 권장할 거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각 대회별로 참고해라' 하는 식의 이것을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예.

**○김기선 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연구기관을 정해 가지고…… 솔직히 지금까지 나왔던 국제대회 평가가 사실은 자화자찬식입니다.

**○김기선 위원** 이게 전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김기선 위원** 이것을 갖다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자산으로 지금 국가가 축적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체육국장이 책임지고 그거 전부 자료 파악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안민석 위원님이나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저한테도 좀 보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예.

**○김기선 위원** 그래서 특히 이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 사후 관리·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저한테,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내 주십시오. 앞으로 강원도에도 국제경기대회 평창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있으니까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이 거의 활용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한번 그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F1 사무총장께서는 내년도에 F1대회는 개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설 운영하는, 그 경기는 흑자를 내고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흑자를 내고 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게 대단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참고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김기선 위원** 그리고 F1 하실 때 전부 큰 것만 보고 있는데 작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이러저러한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유료티켓이 70만 원이라는데 70만 원 주고 몇 사람이 보겠습니까? 실제 인터넷에서는 70만 원짜리가 10만 원, 20만 원에 나가고 있고 이러한 등등의, 그런 것도 공유를…… 왜 7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10만 원, 20만 원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한 예만 지금 들어 드린 겁니다.

이거 조직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경기대회 전체가 다 공유해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다 마쳤는데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주셔서.

아까 충주세계선수권대회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조직위원회 해체는 올 말로 끝나는 거지요?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예, 그렇습니다.

**○현영희 위원** 하지만 그것의 여러 가지 결산 수지를 위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지요?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청산단이 내년 말까지 활동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 사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국제경기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지자체장들의 선거 공약용으로 많이 활용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좋은 점도 많습니다.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최를 해야 된다는 그 의지와 열정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어떤 계획성 없이, 그리고 그 돈이 부족하면 또 전부 다 그것을 국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문체부 국장님이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 세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의 세비가, 혈세가 지금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고 낭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계획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지 기반 인프라 구축도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있을 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자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실행을 했으면 더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국제대회 유치의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F1에서 지금 2012년도까지 대회 운영경비 모두 포함해서 얼마 들었는지 아시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현영희 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직간접 투자비 다 해 갖고 전체적으로요. 위원장님은 몰라도 사무총장님은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약 7000억 정도 소요된……

**○현영희 위원** 지금 모두 건설,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직간접 투자비 다 포함해 가지고 1조 288억 원이 들었습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그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흑자를 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흑자를 냈는지 참 궁금하고요. 흑자 낸 부분은 뭔지, 그 경상수지라든지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리고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현영희 위원** 그런데 민자 유치가 성공률이 몇%입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민자 유치는 F1 경기장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된 사업……

**○현영희 위원** 지금 그게 100% 유치를 다 하고 자체 조달이 다 됐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아니요.

**○현영희 위원** 안 됐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영희 위원** 사실은 계획을 할 때는 민자 유치를 하고 자체 조달을 하겠다, 지방비도 지금 48.9%, 거의 50% 가까이가 지방비에서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국제경기 거기다 반을 이렇게, 전체 예산의 50%를 써 버리면 그 지방에 관련된, 아까 부품공장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이게 잘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부품공장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같이 잘 맞물렸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맞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렇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현영희 위원** 제가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잘 알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여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역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정말 초읽기로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좁은 땅덩어리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현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깊이 잘 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패의 원인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자체 조달이 안 되고 민자 조달이 안 되고,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적자 부분을 계속 국가가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 아닙니까? 맞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상당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현영희 위원**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박준영 도지사는 이번에 끝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3선 아웃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에 오는 도지사가 이 부담을 다 안아야 되는 이런, 정말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참 황당하고 전남의 내년도의 예산이라든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도지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 이해되십니까?

사무총장님이 계속 살림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 나머지 어려운 부분들? 총장님으로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우선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대외수지 개선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는 수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전남도민에게 주는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현영희 위원** 전남도민에게 주는 부담을 이것은 최소화시켜서 지역경제 발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이거 2016년도, 다시 유치했다 치더라도 이게 성공을 못하면요, 결국 도민이나 국가의 모든 우리 국민의 혈세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현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사무총장님, 오늘 국회에 오셔서 위원들께 여러 가지 쓴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의원들, 국회에다가는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질타할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 행사 예산에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던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

**○안민석 위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충주조정대회 또 F1대회, 대구육상경기대회, 광주수영대회 이게 완전히 지역발전 논리, 정치 논리로 마치 이런 행사가 지역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 놓고서 일단 유치가 승인이 되면 정부한테 눈탱이를 칩니다. 눈탱이를 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다들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되풀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행사들을 유치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도 또 이거 예산 증액을 승인한 정부도 다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 동의하세요? 동의하기는 좀 민감한 답변이겠지요, 그렇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대회를 유치한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발생하고……

**○안민석 위원**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운영의 문제가 아니지요. 애초의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수요 예측 없이, 아니 F1대회가 그 지역에 개최되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 자동차경주 보는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았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충주세계조정대회, 우리나라 조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애초의 이런 행사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광주수영대회 하지만 광주가 대한민국에서 수영 도시로서 유난히 수영 인구가 더 많고 수영 동호인들이 많고 수영 선수가 더 많습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메가 이벤트를 함으로써 체육의 정상적인 발전이 저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강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산 100억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스포츠강사들 3분의 1이 지금 관두게 생겼어요. 이게 풍선효과가 나는 거예요. 제가 두 분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 악순환 구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기사를 보면, 위원장님도 잘 좀 귀담아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애초에 356억 신청했다가 대회 승인 이후에 3500억으로 늘었어요, 10배예요. 충주 480억 했다가 1000억이 넘었어요. 2배가 넘어요. 그다음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5배가 늘었어요. 평창 6조에서 12조, 2배가 늘었어요. 그런 사이에 체육관 지어야 되고 수영장 지어야 될 이런 예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선진국처럼 인프라 없이 메가 이벤트만 그냥 하면서 정부에 눈탱이 치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앞으로 지자체나 정부나 국회가 끊는 데 공감대를 모아야 된다는 거고요.

30초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악순환은 이제 서곡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진짜 본 게임은 평창올림픽 유치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릉시에 1500억짜리 실내경기장을 4개 지어요. 인구 20만 강릉시에 65세 인구가 16%나 됩니다. 올림픽 끝나고 강릉의 어르신들이 맨날 스케이트만 탑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그럴 수도 없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사후 활용 방안 이야기하자고 이 특위에서 제가 열 차례나 문제제기를 했을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장관이나 조직위원장이나 강원지사나 전부 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 후손들에게 애물덩어리 남겨 주는 이 대회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자고 하는 본 위원의 제안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답이 없어요. 요즘 '응답하라'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응답하라 평창올림픽', 정말 2014년도 연초에는 평창올림픽 사후 어떻게 될 건지 빨리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강원도민들의 축복이 아니라 올림픽 이후에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 절절한 호소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기막힌 이 현실을 지적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에서 본 위원의 2013년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이 전문가로서 국제경기대회 문제점 그리고 특히 국제경기대회 이후의 사후 활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되짚어 보고 반성할 부분들이 있다면 반성하는 자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설문식 부지사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이 나름대로 괜찮았고 자체 평가도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대회 치르면서 자신감을 가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충북과 충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관석 위원** 언론에 보도된 평들 몇 개 보니까 '규모도 최대였고 또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념을 극복한 기대 이상의 관심과 열기를 끌어냈다' 이런 좋은 평도 있더라고요. 물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차원에서

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투입된 시설비가 총 672억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집행은 638억입니다. 좀 적어졌습니다.

**○윤관석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국제대회 개최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계속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경기 진행을 위해 건립한 시설과 기구의 사후 활용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도 내년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고 또 바로 뒤이어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두 대회 조정경기가 충주 탄금호에서 진행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거 아시고 계신가요?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미 건립된 조정경기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아시안게임조직위 입장에서는 추가로 조정경기 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해서 상호 이익이 클 거라고 봅니다. 충주 쪽에서는 사후 활용이 되고 또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는 추가로 새로 대회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상호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 탄금호 조정경기장의 활용 방안과 또 조정 활성화를 이번 대회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시설활용 방안은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조정과 관련된 국제 또는 국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인천아시아대회나 연도별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 또 2017년 충주에서 예정되어 있는 전국체육대회 등등의 조정경기를 여기서 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도 2015년에 있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6년 브라질 올림픽 아시아 예선전 대회 또 FISA 주관 국제경기대회, 대통령기배 대회나 K-water배 등 여러 대회를 기왕에 마련된 시설을 활용한다는 차원 또 조정경기 능력 활성화 차원에서 충북도, 충주시 그리고 관계부서 또 관계 경기단체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답변하신 대로 국제대회가 계속 연이어 있기 때문에 내년 또 내후년 이런 해당 개최 조직위하고 잘 상의해서 서로 상호 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후 활용이 되고 또 개최한 도시에 있어서는 별도의 신시설을 짓지 않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앞에서도 많이 얘기 나와서…… 총장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14년도에는 불발됐고 15년 F1대회 유치를 위해서 조직위가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계획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내용이 되어야 되고요. 또 정부의 지원 확대나 기업의 지원 대책들을 함께 만들어 내려면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하셨겠습니다마는 포함해서 자체적인 노력 또 국회 차원의 당부하는 지원에 대한 문제 마무리 겸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당초 F1대회를 치르면서 적자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결해야 될 제1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불행하게 내년도에 대회가 1년 동안 휴회가 됩니다마는 휴회가 되더라도 대회가 계속되면서, 궁극적으로 대회를 치르는 이유는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치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착안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점들도 적지 않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정부당국으로부터도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리사 위원** 상임위에 출석을 꼭 해야 되

는, 심의하는 법안 건이 많아서 제가 이석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그 시합을 봤지만 사실 준비하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고 쾌적하고 좋은 경기장 시설로 외국 선수들도 굉장히 만족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나서 항상 나오는 거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큰 대회를 유치했는데 결국은 관중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관중이 외부로 보도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지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부풀려 발표를 하셨는데……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부풀려서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입장권 판매 실적이라든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집계를 한 것인데요. 당초 목표는 약 6만 명이었습니다마는 실적은 약 16만 5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국제경기장 옆에 잔디……

**○이에리사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나중에 예산의 사용처가 나오면 분명히 나올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관람 예산이 예상했던 것보다 40% 정도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대회가 끝난 다음이니까 이것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악성기사 클릭 금지'라는 제목이 한창 언론에 오르내렸지요?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에리사 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담당 직원이 조금 여러 가지 흥행에 실패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사를 올린 것으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공무원이 하신 것 같아요. 그 공무원에 대한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돌아가시면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 방으로 자료를 좀 보내십시오.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시설, 정말 물이 흐르는 데,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로잉(rowing)을 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번 대회를 치르셨는데, 사실은 그 좋은 시설을 제가 그때 가서 알아보니까 생활체육인,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개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 팀들이 사용을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데서는 안 돼서 타 지역 가서 훈련을 하는데, 대학팀이나 실업팀을 육성해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지자체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지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정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충주시장님과 우리 충북도지사님께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함께……

**○이에리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항상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나면 시설에 대한 투입, 그것이 다 국고이지요. 지자체 예산만 들어가지를 않는데 그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거두는 게 너무 없다라는 것, 시설 활용에 대한 문제를 늘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정말 다른 지역에서는 시설이 없어서 선수 육성을 못하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운영만 해주면, 정말 대학교나 이런 데에 권장해서 운영만 해 주면 선수들은 공부하면서 선수생활도 할 수 있는, 가까운 데에서 배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그것은 정말 특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대학이나 실업팀도 창설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챙겨서…… 시설활용 대안으로도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F1 문제는 사실 좀 애석합니다. 이번에 다시 유치가 안 된 부분은 애석하지만, F1 문제 궁금했던 게 왜 F1의 관람료가 비싼 건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F1대회는 매년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대회가 치러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각국 나라별로 입장료가 책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70만 원은 3일 동안의 입장권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책정되는 게 F1 기구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 결정을 할 때.

**○이에리사 위원** 그래서 그 가격표를 제가 다 봤습니다. 다 서로 아는 거니까 제가 그냥 말씀하시는 도중에…… 가격이 어떻게 보면 참 현실성 없는 가격이다, 그래서 더더욱 관중이 너무 없었던 것 아닌가, 정말 실패한 F1대회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이번에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다 실패를 하셨는데 다시 또 F1을 유치하시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수준에 맞는 그런 가격 책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유치해 놓고 나서 중계권 문제가, 우리가 F1조직위에다 돈 낸 것에 비해서 우리는…… KBS에 중계료를 1억 5000만 주고 중계를 했단 말이지요. 이런 데서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을 예상보다 턱없이 되지 않는 부분을 책정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추후에 다시 유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우선 입장권료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적 현실에 맞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요.

중계권료 문제는 첫 대회 때 130억 의무부담을 하도록 계약이 책정됐었는데 그걸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세 번째 대회부터는……

**○이에리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안고 가는 빚이지요, 그렇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위원장 김재윤**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부지사님,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역대 세계조정선수권대회사상 최대의 규모였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조정경기장 시설을 확보한 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구 21만의 중소도시에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조정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안게임은 조정경기장에서 치르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사님?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렇습니까? 어쨌든 아까 우리 이에리사 간사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세계 최고의 국제경기장 시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보됐으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리고 우리 F1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님, F1대회 때문에 전남도민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F1대회에 대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시고 앞으로 정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멈춰야 되는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부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향후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제부지사 설문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리고 우리 체육국장님, 지금 2010년 이후 국제대회 유치 국비지원을 비교해 보니까 유치승인 신청, 요구할 때하고 유치 이후의 국비지원액 차액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제외하고도 무려 6610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물론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지원이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6600억 원이라는 예산은 국민체육센터 30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무려 220개나 지을 수가 있고 스포츠강사 3만 3000여 명이나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는 게 중요한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까지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국고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번 면밀하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박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박대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는 국제경기를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앞으로 국제경기대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민석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개선하는 데,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을 시점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사후 활용 방안을 포함해서 국제경기대회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앞으로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책임성을 가지고 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설문식 부지사님, 이개호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 위원(16인)**

| | | | |
|---|---|---|---|
| 권성동 | 권은희 | 김기선 | 김재윤 |
| 김현 | 박대동 | 박혜자 | 안민석 |
| 염동열 | 윤관석 | 윤호중 | 이에리사 |
| 이재영 | 이한성 | 최동익 | 현영희 |

**○출석 전문위원**

| | |
|---|---|
| 수석전문위원 | 임진대 |
| 전문위원 | 박명수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 |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 박위진 |
| 충청북도경제부지사 | 설문식 |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 이개호 |